



혼밥, 어디까지 알고있나요?

이진규, 서현택, 김선영
충남대학교 정보통계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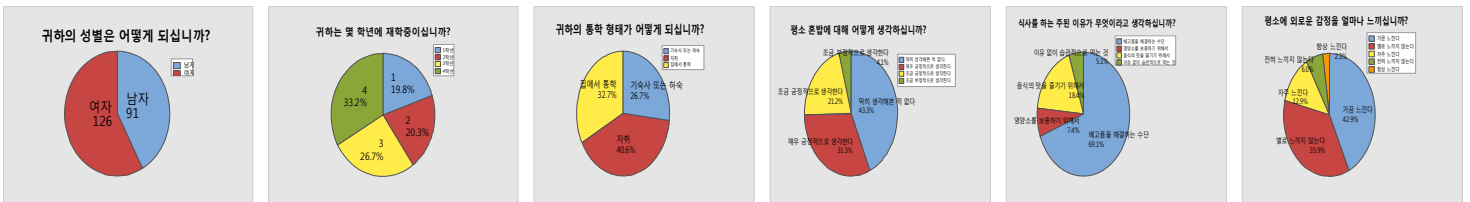
주제 선정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혼밥', '혼밥족'이라는 단어는 전혀 낯설지 않아졌다. 그만큼 혼밥 문화가 많이 보편화됐기 때문인데 이유를 찾아본 결과, 대부분의 기사 자료에서는 '1인 가구의 폭발적인 증가'를 원인으로 삼고 있었다. 그렇다면 과연 대학생들에게는 얼마만큼의 혼밥 문화가 형성되어 있고 어떠한 원인에 의해 혼밥 문화가 생겨나게 됐는지 우리대로 원인을 조사해보고자 '대학생들의 혼밥 문화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과정

1. 조사대상 : 임의의 대학교 남녀 재학생
2. 조사날짜 : 2017년 07월 29일 ~ 08월 03일(총 6일 간)
3. 질문항목 : 성별, 학년, 통학형태, 일주일 평균 혼밥 횟수, 혼밥에 대한 인식, 식사를 하는 주된 이유, 외로운 감정을 느끼는 정도
4. 조사방법 : Google 설문지를 통한 인터넷 조사
=> 총 232명에게 응답을 받았으나, 무성의한 응답 15개를 제외한 217개로 조사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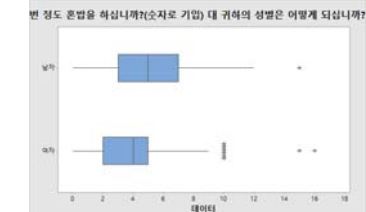
자료 요약



통계 분석

성별과 혼밥 횟수는 관계가 있을까?
(2표본 t검정)

H0 : 성별에 따라 혼밥 횟수는 차이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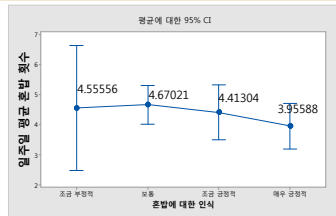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N	평균	표준 편차	평균의 대립 가설	H0: $\mu_1 - \mu_2 = 0$	H1: $\mu_1 - \mu_2 \neq 0$
남자	91	5.01	3.07	0.32	T-값	DF
여자	126	3.94	3.14	0.28	2.51	215

유의수준 0.05에서 검정통계량 T값이 2.51, 유의확률이 0.013으로 더 낮음으로 귀무 가설을 기각한다. 따라서 성별에 따른 혼밥 횟수에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고, 남자의 평균이 5.01, 여자의 평균이 3.94로 남자가 여자보다 혼밥 횟수가 많다고 할 수 있다.

H0 : 학년에 따라 혼밥 횟수는 차이가 없다.

유의수준 0.05에서 검정통계량 F값이 2.87, 유의확률이 0.037로 더 낮음으로 귀무 가설을 기각한다. 따라서 학년에 따른 혼밥 횟수에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고, 학년에 올라갈수록 혼밥 횟수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Tukey 사후분석 결과 모든 학년은 같은 그룹 A로 묶였다.

혼밥에 대한 인식과 혼밥 횟수는 관계가 있을까?
(분산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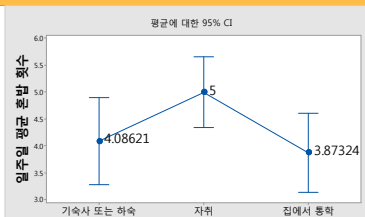


혼밥 횟수	DF	Adj SS	Adj MS	F-값	P-값
조금 부정적	3	20.47	6.822	0.68	0.563
보통	213	2125.02	9.977		
총계	216	2145.48			

H0 : 혼밥에 대한 인식에 따라 혼밥 횟수에 차이가 없다.

유의수준 0.05에서 검정통계량 F값이 0.68, 유의확률이 0.563으로 더 크므로 귀무 가설을 채택한다. 따라서 혼밥에 대한 인식에 따른 혼밥 횟수의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다.

통학 형태와 혼밥 횟수는 관계가 있을까?
(분산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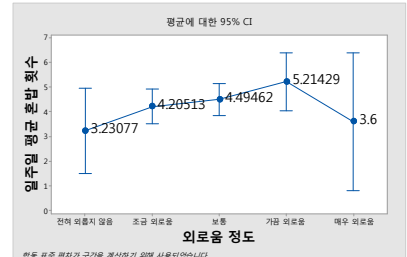


혼밥 횟수	DF	Adj SS	Adj MS	F-값	P-값
기숙사 또는 하숙	2	57.06	28.528	2.92	0.056
자취	214	2088.43	9.759		
총계	216	2145.48			

H0 : 통학 형태에 따라 혼밥 횟수에 차이가 없다.

유의수준 0.05에서 검정통계량 F값이 2.92, 유의확률이 0.056으로 더 크므로 귀무 가설을 채택한다. 따라서 통학형태와 혼밥 횟수가 관계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유의확률이 거의 0.05에 가까우므로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 있으며 자취하는 사람일수록 혼밥 횟수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외로움과 혼밥 횟수는 관계가 있을까?
(분산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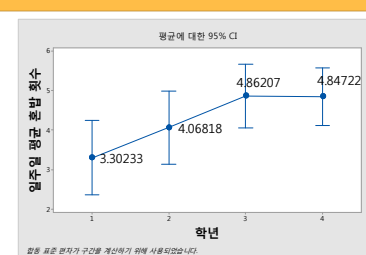


혼밥 횟수	DF	Adj SS	Adj MS	F-값	P-값
외로움 정도	4	43.30	10.824	1.09	0.362
오차	212	2102.19	9.916		
총계	216	2145.48			

H0 : 외로움 정도에 따라 혼밥 횟수에 차이가 없다.

유의수준 0.05에서 검정통계량 F값이 1.09, 유의확률이 0.362로 더 크므로 귀무 가설을 채택한다. 따라서 외로움 정도에 따라 혼밥 횟수에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학년과 혼밥 횟수는 관계가 있을까?
(분산분석)



혼밥 횟수	DF	Adj SS	Adj MS	F-값	P-값
학년	3	83.40	27.801	2.87	0.037
오차	213	2062.08	9.681		
총계	216	2145.48			

결론 및 견해

분석 결과 혼밥 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성별", "학년"이 있으며, 혼밥 횟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되었던 "혼밥에 대한 인식", "통학 형태", "외로움 정도"는 영향을 미치는 않는다는 결과 나왔다. 최근 기사 중 "혼밥은 문화인가, 문제인가?"라는 것이 있었다. 하지만 본 조사를 진행하면서 많은 응답자들에게 혼밥에 대한 인식을 물어본 결과 혼밥을 부정적이라고 답한 사람은 9명으로 4%밖에 되지 않았다. 또한, 혼밥 횟수도 일주일 평균 4.387로 꽤 높은 수치가 나왔다. 따라서 혼밥을 문제라고 생각하기 보단 새로운 문화로 인식해서 그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